

韩国报刊选读

朴淑子 编著



对外经济贸易大学出版社

韩国报刊选读

朴淑子 编著

·

对外经济贸易大学出版社

(京)新登字 182 号

图书在版编目 (CIP) 数据

韩国报刊选读 / 朴淑子编著. -北京: 对外经济贸易
大学出版社, 2000. 6

ISBN 7-81000-990-7

I. 韩... II. 朴... III. 朝鲜语-语言读物
IV. H559. 4

中国版本图书馆 CIP 数据核字 (2000) 第 08937 号

© 2000 年 对外经济贸易大学出版社出版发行

版权所有 翻印必究

韩国报刊选读

朴淑子 编著
责任编辑: 徐永彬

对外经济贸易大学出版社
北京惠新东街 12 号 邮政编码: 100029

山东省莱芜市印刷厂印刷 新华书店北京发行所发行
开本: 850×1168 1/32 9.125 印张 231 千字
2000 年 6 月北京第 1 版 2000 年 6 月第 1 次印刷

ISBN 7-81000-990-7/H·236
印数: 0001-3000 册 定价: 14.00 元

前 言

在我国各大学外语专业设置报刊选读课程的时间并不短，但由于报纸的新闻性，时间性很强，一般都采取由每个教师自己选取报纸上的有关文章讲授的方法。这样做虽然有内容新、贴近生活的优点，但缺乏教学的计划性和系统性。对报刊选读课需不需要固定教材的问题，北京大学、语言文化大学等兄弟大学为外国留学生编写出版的教材已经给了肯定的答案。

在韩国，报纸是最主要、最普及、最直接的新闻媒体之一。要想真正了解韩国社会，与韩国人打交道，首先要学会读懂韩国报刊。但对外国人来说，真正读懂韩国报刊，并非易事。韩国报刊上的各类文章，涉及的内容包罗万象、体裁广泛、风格各异。尤其是韩国报刊语言很丰富，既有书面语，又有口头语和流行语，既有俗语、方言，又有专业术语，既有古语，还有很多外来语和新词汇。要想真正读懂韩国报刊，不仅要具有较高的语言能力，而且还要具有较扎实的韩国历史、社会背景等知识。所以，在我国各大学学习韩国语的大学生，也很需要一个固定的教材。

但至今我们国内还没有这方面的教材，本人抱着抛砖引玉的心态，参考韩国的部分报刊教材和国内的中文报刊阅读教材，从八个种类的数千份韩国报纸中精选各种题材和体裁的文章，编写了这本韩国报刊选读。本教材设二十三课，每课都由

正文、注释、生词注解、练习题、译文等组成。另外，为使学生更多地接触到更多的韩国报刊文章，每课还附上了二~三篇课外阅读文章。

在本书的编写过程中受到对外经济贸易大学姜信道教授的具体指导，中央民族大学徐永燮教授亲自审稿，还得到诸多韩国朋友及各位同事的支持和帮助，对此表示深深的谢意。

由于本人水平有限，难免纰漏，欢迎各位老师和同学对书中的不足之处提出批评与指正。

编 者

二000年三月二十八日

目 录

제1과 한·중 공동성명 12개항 (요지)·····	1
과의 열독 1.세계경제 ‘Y2K불황’경고 ·····	6
2.中國경제, 잔치는 끝나는가·····	8
3.뼈곡시계와 ‘정치시계’·····	10
제2과 작은 고추가 맵다·····	12
과의 열독 1.실리콘밸리서 SW수출길 연다·····	19
2.세계적 기업의 장수비결 ·····	20
제3과 IMF처방과 한국경제·····	23
과의 열독 1.1997년 12월 3일의 國恥 ·····	28
2.IMF시대의 생활철학·····	29
제4과 곳곳한 『학자의 길』 속에 참스승 모습이·····	33
과의 열독 1.작은 것의 아름다움·····	37
2.사람은 무엇으로 평가되는가·····	39
3.소행성 ‘세종’ 명명·····	41
제5과 한글 반포 552돌 한글날에·····	43
과의 열독 1.표기법 현실 맞게 대폭 손질한다·····	47
2.세종탄신 600돌을 보내며·····	50
3.외래어수용의 바른 길·····	52
제6과 대홍수 이긴 중국의 저력·····	55
과의 열독 1.양쯔강 홍수는 ‘자연의 보복’·····	58
2.중국 위안貨와 동아시아경제 ·····	60

제7과 21세기는 문화주의시대	64
과의 열독 1.중국, 그 문화를 읽으면	
과거 · 현재 · 미래가 보인다	69
2.미국 · 유럽에 부는 동양의학 열풍	71
제8과 흙 속에 길이 있다	75
과의 열독 1.유머의 인생유전	80
2.IMF이후를 생각하자	82
제9과 대통령의 눈물	85
과의 열독 1.똑똑하고 부지런한 대통령	91
2. 닭칼과 소칼	93
제10과 【1】 불효자의 한가위 귀성길	96
【2】 떠난 이와 지킴 이가 만나는 추석	97
과의 열독 1.컴퓨터 안에 추석 장터 열렸네	99
2.고령화 대책의 방향	102
제11과 【1】 나토공습과 코소보사태	105
【2】 무엇을 위한 공습인가	106
과의 열독 1.햇볕정책이 나아갈 길	112
2.인권의 국제화 서둘러야	114
제12과 【1】 꿈나무 잘 가꿔야 길이 열린다	117
【2】 넘치는 스틸...90분이 짧다	118
과의 열독 1.연극科 낙방생이	
무대에선 壯元일제	121
2.思索을 길어올린 웅숭깊은 音色	124
제13과 달 남극에 유인우주기지 세운다	128
과의 열독 1.“어, 별이 쏟아지네”	133
2.물까마귀 비밀 엿본다	135
제14과 선물고르기	137

과외 열독 1. “先親께 드리는 불효자의 선물”	142
2. 희망과 욕망 사이	143
제15과 인터넷 시대 최선의 선택	146
과외 열독 1. 너희가 인터넷을 믿느냐	150
2. 뽀빠는 ‘정보박사’	152
제16과 옛얘기처럼 구수한 기상상식	155
과외 열독 1. 물의 위기	160
2. 21세기 환경에너지 원자력	161
3. 中部 호우는 엘니뇨-라니냐 ‘합작’	163
제17과 ‘형님 먼저’ 불문을 ‘1등 먼저’로 바꾼다	165
과외 열독 1. “나이보다 능력” 봉급 혁명	169
2. ‘저울’의 공정성에 달렸다	170
제18과 추락하는 미시족 다시 뜨는 ‘아줌마’	173
과외 열독 1. 슬기로운 엄마들	177
2. 내일은 맑음	180
3. 엄마가 된다는 건	182
제19과 사이버대학 만드는 파워우먼 5	186
과외 열독 1. 두드려라 그러면 열리리니	191
2. 신문·서적, 정보화시대의 골동품인가	194
3. 세계경제 주무르는 ‘케임브리지師團’	197
제20과 국내외 ‘쌍둥이 3低’…기회가 왔다	200
과외 열독 1. 아시아적 가치와 경제모델	205
2. 동북아版 세계화	208
제21과 허물어진 생존 ‘보호막’ 금융권 소리없는 전쟁	211

과외 열독 1. “변화 흐름 꿰뚫어야 목돈 벌 수 있다”	216
2. 세계증시 문제아로 떠오른 헤지펀드— ‘치고 빠지기 투자’ 금융교란	218
제22과 “친절한 컴퓨터를 만들어라”	220
과외 열독 1. 단말기 · 소프트웨어 무선통신 변화주도	225
2. 노트북도 ‘펜티엄Ⅱ시대’	226
제23과 牛去油來	228
과외 열독 1. 北의 가족 그리움에 애간장	231
2. 어머니! 살아 계시지요	233
课文参考译文	236
参考书目	284

제 1 과

한 · 중 공동성명 12개항 (요지)

1. 국빈 방중 경과 설명

2. 정상회담 개최 및 주요인사 면담사실 설명

3. 21세기의 한 · 중협력동반자관계 구축합의

양국 정상은 수교 이래 선린우호 협력관계가 발전해온 데 만족을 표명하고, UN헌장의 원칙과 한중수교 공동성명의 정신 등에 기초해 21세기의 협력동반자관계를 구축키로 했다.

4. 아시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협력 다짐

양측은 아시아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정보교류 등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은 중국의 인민폐 환율안정과 내수확대를 통한 경제성장 유지정책이 아시아 금융위기를 완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음을 평가했고 중국은 한국이 추진중인 경제개혁 및 금융위기 극복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5.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 안정을 위한 협력강화

중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유지를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을 재천명하고 남북한간의 대화와 협상을 통한 자주적인 평화통일 실현을 지지하며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의 목표가 조속히 실현되기를 희망했다. 양측은 4자회담을 통해 한반도에서 항구적인 평화체제가 점진적으로 수립되기를 희망했다.

6. 대만문제

한국은 하나의 중국과 대만이 중국의 일부분임을 인정했다.

7. 고위인사의 교류확대

양측은 양국 지도자, 정부·의회·정당간의 교류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8. 경제·통상분야 협력

양측은 양국간 「경제·무역 및 기술 협력 공동위원회」의 수석대표를 차관급으로 격상시키고 양국간 무역 불균형현상을 무역확대를 통해 개선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국은 중국의 대한 수출금융 제공 제의를 환영했고 중국은 한국의 조정관세 축소방침을 환영했다. 한국은 중국의 방콕협정가입을 지지하였고 양국간 경제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중국내의 2개 사업에 대한 70억원(한화)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제공을 올해 안에 결정키로 했다. 양측은 금융감독관리부문과 금융시장 상호 개방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하였다.

9. 산업·과학기술분야에서의 협력

양측은 「한·중산업협력위원회」의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산업, 과학기술, 정보통신, 환경, 에너지, 자원, 농업, 임업,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사회간접자본 건설, 철도 등 재반 부문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은 초고속정보통신망 및 전자 상거래 등 국가 정보화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첨단 통신기술개발분야에서 지속적인 협력을 추진키로 했다. 양국은 또 환경보호 및 환경산업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환경오염과 황해환경보호 등에 대한 정부간 공동조사연구 및 동북아시아 지역 협력활동에 참여키로 했으며 황해환경보호를 위해 유조선 사고시 해상오염을 예방하는데 공동 노력키로 했다.

양국은 「한·중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을 위한 협정」에 근거, 핵과학기술 및 핵에너지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했다. 양측은 「한·중 철도분야 교류

및 협력약정」을 체결했다.

10. 문화예술·청소년분야에서의 협력

양측은 미래지향적인 양국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국민간 상호 이해 증진과 다양한 교류확대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한·중문화공동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양국은 각각의 정부수립 50주년을 기념하여 금년과 내년에 각종 행사를 개최하기로 했고 이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양측은 「한·중 형사사법공조조약」 「한·중 사증발급절차 간소화 및 복수 사증 발급에 관한 협정」 및 「한·중 양국 정부간 청소년 교류양해각서」 등 문서에 서명하고 어업협정을 가서명한 데 환영을 표시하고 이들 문서가 양국 관계 발전과 양국간 교류 및 협력의 확대에 기여하기를 희망하였다.

11.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강화

양측은 핵무기 확산 방지와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 및 생화학무기 감축과 국제조직범죄 등 국제문제에 있어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한국은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조기가입을 지지하는 입장을 재천명하였으며 양측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및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고 2000년 한국에서 개최되는 제3차 ASEM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12. 장쩌민 주석 방한초청

김대중 대통령은 장쩌민 주석의 방한을 초청하였고 장 주석은 이를 흔쾌히 수락했다.

(한국일보 1998년 11월 14일)

단 어

국빈	(명) 国宾, 贵宾
구축하다	(타) 构筑, 建筑

합의	(명) 协商, 意见一致, 达成协议
선린우호	(명) 睦邻友好
환율	(명) 兑换率, 汇率
내수	(명) 内需, 国内需要
재천명	(명) 重申
자주적	(명) 自主的
비핵화	(명) 无核化
조속히	(부) 早日, 尽快地
항구적	(명) 永久的, 长远的
점진적	(명) 渐进的
수석대표	(명) 首席代表
차관	(명) 副部长
격상하다	(타) 升格
초고속정보통신망	(명) 超高速信息通信网
에너지	(명) 能, 能量, 能源
지향적	(명) 向往的
형사사법	(명) 刑事司法
복수 사증	(명) 多次签证
양해각서	(명) 谅解备忘录
어업협정	(명) 渔业协定

연습문제

1. 아래의 글을 읽어 보고 본문의 공동성명은 어디에 해당 되는지 생각해 보세요.

- (1) 두 사람 이상 또는 둘 이상의 단체나 국가가 공동으로 발표하는 성명
- (2) 한 나라의 정부 수뇌가 외국을 방문하였을 때, 그 나라 수뇌와의 회담내용, 특기 사항 등을 발표하는 문서

2.본문에 근거하여 올바른 답안을 찾으세요.

(1)양국 정상은 21세기의 협력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ㄱ.유엔헌장의 원칙과 중한 수교공동성명의 정신에 기초하여

ㄴ.유엔헌장과 공동성명에 기초하여

ㄷ.유엔헌장의 원칙과 중한 공동성명에 기초하여

(2)양측은 아시아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ㄱ.경제 개혁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ㄴ.정보교류 등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ㄷ.경제무역 거래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3)양측은 4자회담을 통해 한반도에서 항구적인

ㄱ.평화 체제가 점진적으로 수립되기를 희망하였다.

ㄴ.대화 체제가 점진적으로 수립되기를 희망하였다.

ㄷ.발전이 이룩되기를 희망하였다.

(4)양국은 또 환경보호 및 환경산업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환경오염
과 황해 환경보호 등에 대한

ㄱ.민간적인 공동조사연구를 하기로 하였다.

ㄴ.지역간 공동조사연구를 하기로 하였다.

ㄷ.정부간 공동조사연구를 하기로 하였다.

3.본문을 읽고 어떤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는지 말해 보세요.

(1)아시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협력 다짐

(2)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 안정을 위한 협력 강화

(3)경제, 통상 분야 협력

(4)산업,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협력

(5)문화예술, 청소년 분야에서의 협력

(6)국제 무대에서의 협력 강화

4.다음의 단체, 기구의 명칭을 읽어 보고 주로 무슨 역할을 하는지
알아 보세요.

<경제 무역 및 기술 협력 공동위원회>

<한중 산업 협력 위원회>

<한중 문화 공동위원회>

세계 무역 기구(WTO)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의회(APEC)

아시아, 유럽 정상 회의(ASEM)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ARF)

5.본문을 숙독하고 물음에 대답하세요.

- (1)중한 양국은 왜 넓은 범위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어요?
- (2)2000년 한국에서 어떤 회의가 개최되는가요?
- (3)공동성명에서 몇 개 협정이 언급되었는지 말해 보세요.
- (4)이 공동성명을 읽고 무슨 생각이 떠오르는지 이야기해 보세요.

· 과외 열독 ·

[1] ‘20세기 컴퓨터’에 갇힌 지구촌—

세계경제 ‘Y2K불황’ 경고

전경련 해외전문기관인용 보고서—밀레니엄 버그 해결 못하면 오일쇼크 버금
2000년부터 최장 2년간 경기 침체 우려 제조·운송업 전반 차질…정부차원 대책을

컴퓨터의 2000년 인식문제(Y2K, 밀레니엄 버그)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 세계경제는 아시아 지역 등의 경기침체와 맞물려 2000년에 1차 오일쇼크 정도의 심각한 불황에 빠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외국금융기관의 분석을 종합해 2일 발간한 ‘컴퓨터 2000년 문제의 경제적 영향’이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도이치방크증권사는 “Y2K문제가 전산망 뿐 아

나라 발전소, 유전의 시추설비, 공항의 관제설비, 통신설비 등 모든 제조업과 운송업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경제전체의 디플레이션이 가속화돼 최악의 경우 12~24개월간 불황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Y2K문제에 대해 낙관론을 펴온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도 99년부터 은행들이 기업에 대한 대출을 줄일 경우 실제 불황이 닥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미국의 컴퓨터전문컨설팅기관인 SPR사는 한국의 경우 Y2K보수에 들어가는 월 인원이 124만 7,000명에 이르고 이들에게 월 5,400달러가 소요된다는 가정 아래 총 소요비용이 67억 3,300만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았다. 이는 97년 GDP(국내총생산액)의 1.44%에 해당하는 규모다.

전문가들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Y2K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GDP의 1~3%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으며 가트너그룹은 법률비용까지 포함해 전세제적으로 3,000억~6,000억달러, 순수한 법률소송비용이 1조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Y2K문제는 석유위기와 같은 경제적 교란요인과 달리 발생시기가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운다면 불황을 피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정부차원에서 공공부문 및 국가기반시설에서의 Y2K문제를 조속히 해결, 경제시스템 전체로 확산되는 사태를 막고 그 경험을 민간부문에 확산시켜야 하며 민간부문에서는 충분한 재고확보와 자동화시스템 중단에 대비한 예비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최선의 대책이라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Y2K란?】 ‘Year 2000’의 줄임말이다. ‘2K’의 K는 10의 3승(1000)을 의미한다. Y2K라는 말은 2000년부터 연도들을 표기할 때 컴퓨터가 마지막 두자리 수로만 연도를 인식하는데 따른 혼란이 예상됨에 따라 2000년 문제(밀레니엄 버그)라는 말이 자주 쓰이면서 일반화된 약어다.

權赫燦 기자

(서울신문 1998년 11월 3일)

【2】中國경제, 잔치는 끝나는가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이 없듯 끝나지 않는 잔치도 없다. 인류 역사를 통해 수없이 명멸해간 국가들 역시 마찬가지다. 아무리 경쟁력 있는 국가라 해도 좋은 시절을 끝없이 계속 향유한 경우는 결코 없다. 羅貫中(나관중)이 그의 소설 ‘三國演義(삼국연의)’에서 “통합이 오래 지속되면 분열이 오고 분열이 장기간 이어지면 통합이 온다(合久必分, 分久必合 · 합구필분 분구필합)”고 설파한 것처럼 하나 예외없이 흥망성쇠의 주역으로만 남은 채 역사 저편으로 사라진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夏(하)나라에서 출발, 春秋戰國(춘추전국)과 秦漢(진한)시대를 거쳐 元(원), 明(명), 淸(청)나라로 이어진 수많은 중국 왕조의 대부분은 아마 존재조차 없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현대에 들어와도 ‘잔치는 반드시 끝난다’는 절대명제는 불후의 진리로 손색이 없다. 언젠가는 미국을 추월해 세계 최대의 경제대국이 될 것으로 예상됐던 일본의 요즘 예만 들어도 이 사실은 충분히 증명된다. 생각지도 않은 불청객인 거품경제의 붕괴로 1964년 도쿄(東京)올림픽 이후 35년여동안 이어진 신나는 잔치가 완전 엉망으로 변해갈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경쟁국 미국이 회심의 미소를 지을 필요도 없다. 지금은 비록 80년대의 불경기에서 벗어났다고는 하지만 계속 잘 나갈 가능성이 길어야 ‘원 제너레이션’, 즉 30년에 그칠 것이라는 일부의 전망이 미국의 잔치도 곧 落照(낙조)에 물들 것임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요즘 중국 경제는 외전상 그럴저럭 괜찮다. 44년만의 대홍수 피해를 보았다고는 하나 중국 지도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8%, 인플레이션 3%내 억제라는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 없다는 자신감을 보여줄